

# 지혜의 말씀

불기 2570년 3월 / 통권 540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진해대광사  
조계종  
불기 257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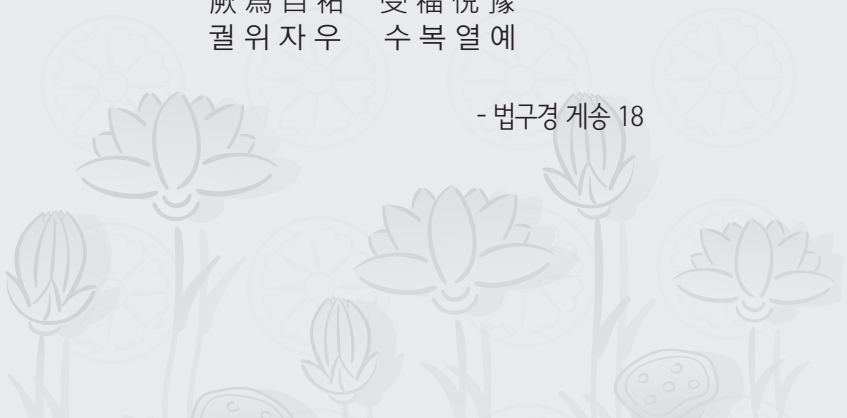


# 법구경 (法句經)

선행을 하는 자는  
 금생에서도 즐겁고  
 다음생에서도 즐겁고  
 두 생에서 모두 즐거워 한다.  
 착한 일을 했구나! 하고  
 되새기며 즐거워하고  
 천상에 태어나 더욱 즐거워한다.

今歡後歡	爲善兩歡
금환후환	위선양환
厥爲自祐	受福悅豫
quel 위자우	수복열예

- 법구경 계송 18



##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도반(친구) / 운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12 / 자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13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대광사 수미산악회 3월 산행 안내

연등접수 안내

제 24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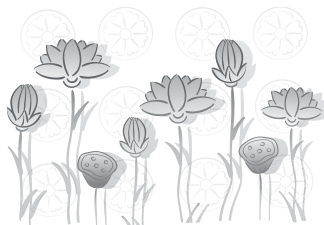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s.or.kr](http://www.daegwangsas.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 도반(친구)

윤성스님 / 대광사 회주

왕희지(王羲之 303~361)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다섯째 아들이 왕휘지(王徽之 338~368)다. 중국 최고의 서예가인 아버지 왕희지와 달리 아들 휘지는 호방한 성격에 활달한 성격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다.

친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 대사마, 참군, 거기장군 등을 지내기도 했다. 친구와 더불어 서로 어떻게 존중하며 신뢰하며 지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천하 명필 아버지 왕희지의 피를 물려받은 그도 적지 않은

문장력과 필력을 과시하여 많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남기기도 했다.

한 번은 거리를 지나다가 피리의 명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환’이었다. 평소 이름을 들어 잘 알고 있던 터라 먼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다짜고짜 한 곡 들려주기를 청했다. 환도 역시 그를 알고 있던 터라 흔쾌히 피리 연주를 시작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연주에 심취하고, 듣기에 심취하여 한참을 지났다. 연주를 끝낸 환은 아무 말 없이 피리를 챙겨 떠나고 왕휘지는 떠나는 그를 바라보며 다만 눈인사만 전할 뿐이었다. 그와 나의 마음이 하나되어 어떤 의심도 두지 않고,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일 것이다.

어느 날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다. 호수에 비친 달빛에 취해 글을 쓰다가 문득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났다. 얼른 배를 빌려 친구 있는 곳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노 젓는 물살에 길게 부서져 가는 반짝이는 물빛을 흥겹게 바라보며 아직 잠들지 않은 새들의 소리 음미하며 시를 읊조려 가노라니 어느덧 새벽이 뿌연게 밝아오고 있었다. 드디어 친구가 머무는 초가에 도달했다.

배를 멈추고 아직 기침하지 않은 친구 방을 한참 바라보다

가. 돌연 배를 돌려 돌아가고 있었다. 마침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어 물었다.

“밤새워 먼길을 노저어 와서 정작 친구는 보지도 않고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그에게 말했다.

“밤새도록 친구와 같이 있으며 달빛 밝은 밤을 함께 누렸는데 새삼 친구의 곤한 잠을 깨워 무엇하겠는가?”

절에서 친구를 도반(道伴)이라 한다. 도는 진리라는 말이 고 반은 친구라는 말이다. 진리를 함께 닦아가는 친구라는 말이다.

도는 진리를 이르는 말이지만 진리는 깨달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참다운 이치며, 참다운 판단이며, 참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불변의 노력이다.

깨달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깨달은 자는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신선한 진리의 실천자다. 부처란 무엇에도 걸림이 없고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존재다. 수행자는 이를 실천 노력하는 자다. 도반은 이

를 실천 노력하도록 서로 감시자 되고 서로 의지처 되고 서로 격려자 되는 친구다.

「수제가」 장자가 전단으로 발우를 만들어 코끼리 상아에 걸어 놓고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막대기를 쓰지 않고 사다리도 쓰지 않고 떼어 오면 주겠노라.” 했다.

여러 교파 수행자들이 소식 듣고 달려왔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모두 돌아갔다. 전단 나무 발우는 값도 많이 나가지만 귀하기도 해서 좀처럼 얻기 어려웠다. 빈두루 존자가 목련께 이야기 했더니...

목련 존자가 처소에 들어가 선정에 들어 가만히 앉은 채 손을 뻗어 발우를 가지고 와서 빈두루 존자에게 주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빈두루를 불러 물건을 탐하여 신통을 쓰는 짓은 수행자가 절대로 해서 안 될 짓이라고 책망하셨다.

친구 즉 도반으로 인해서 잠시 잘못된 판단을 이르켜 부처님께 꾸중을 듣게 된 사례다, 친구 즉 도반은 나를 옳은 길로도, 나쁜 길로도 인도할 수 있다. 반드시 좋은 뜻을 가진 좋은 친구를 선택해서 믿음과 동사섭으로 함께해야 한다.

## 『법구경』 해설 - 13

### 수마나 이야기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느 때,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희사한 아나다뻘디카(급고독 장자)의 막내 딸 수마나와 관련하여 하신 이야기다.

당시 사위성에는 두 재산가 급고독장자와 위사카라는 부인이 있었다. 이들은 매일같이 각각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비구들의 탁발에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랬으므로 이들 두 사람은 스님들의 식성이라든지 기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승가에 공양을 올리려고 하면 이 두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이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는 공양의 경험이 꼭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뒤 위사카 부인은 자기도 이제는 너무 늙어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자기 대신 승가에 공양을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한 끝에 자기의 손녀가 이 일의 적임자라 보고 그녀에게 일을 맡기고 자기는 물러앉아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위사카의 손녀는 기대한 대로 할머니가 하던 일을 잘 처리해 나갔다

한편 급고독장자도 자기의 큰딸 마하수밧다로 하여금 자기 대신 승가에 공양하게 했다. 그녀도 그 일을 아버지 못지않게 잘 처리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그녀에게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지도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수다원과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마하수밧다는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고독장자의 둘째 딸 쫘라수밧다가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녀 또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일을 잘 처리하여 수다원과를 성취한 다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마지막으로 셋째 딸 수마나에게 그 일이 돌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앞의 두 언니보다 그 일을 잘 처리했고, 수행 또한 열심이어서 깨달음의 과위도 언니들보다 한 단계 높은 사다함과를 얻었다. 다만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중병이 걸려서 음식 먹는 것도 끊고 자리에 앓아누웠다. 얼마 지나잖아 수마나가 아버지를 찾았다. 이때 급고독장자는 공양간에서 일을 하다 부쩍 수척해진 막내 딸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내 귀여운 막내 딸아!”



그러자 뜻밖에도 수마나는

“지금 아우님은 내게 뭐라고 말했지?” 하고 말하는 것이  
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아버지는

“애야, 넌 지금 제 정신이 아니로구나. 애비를 보고 아우라  
니?”

그렇지만 수마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나는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다. 넌 내 아우가 분명해.”

“사랑하는 나의 딸아, 뭔가 두려운 게 있느냐?”

“난 두렵지 않아, 아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수마나는 죽고 말았다.

급고독장자는 수다원과를 성취한 수행이 높은 재가신도였  
지만, 막내딸의 죽음을 맞아 크나큰 슬픔에 빠졌다. 그는 슬  
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곧바로 부처님에 계시는 기원정  
사를 찾았다. 그는 부처님께 수마나의 죽음을 전하고 사퇴  
었다.

“부처님이시여, 수마나는 늘 겸손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  
다. 그렇게 착한 딸이 죽을 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헛소리를  
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서는 급고독장자에게 말씀하시었다.

“급고독장자여, 그대의 딸은 결코 정신이 흐렸던 것이 아니  
니라. 죽음에 임박한 수마나는 아주 맑은 정신상태를 지니



고 있었느니라.”

“그렇다면 수마나는 어째서 애비인 저를 가리켜 아우라고 불렀습니까? ”

“그것은 세속적인 인연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수행의 정도를 가리켜 말한 때문이니라. 그대는 성류(聖類)에 처음 들어간 수다원과를 얻었지만, 수마나는 그 위의 단계인 사다함과를 성취했고, 그 때문에 막내딸은 그대를 아우라고 불렀던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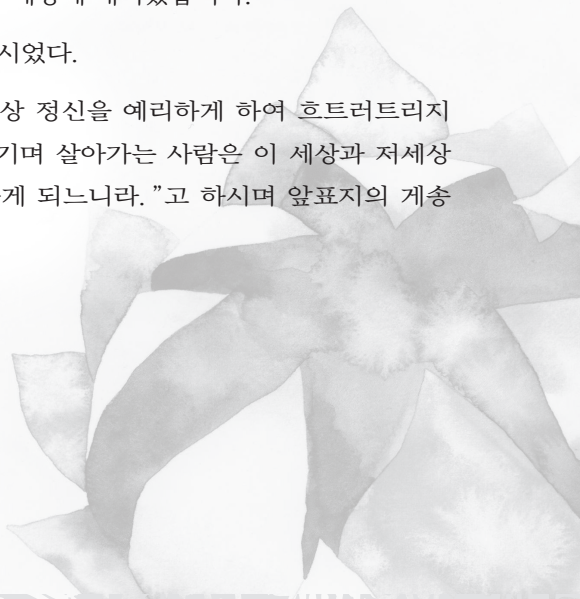
“알겠습니다 부처님, 수마나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

“장자여, 수마나는 푸시따천(도솔천)에 태어났느니라.”

“부처님이시여, 저의 딸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즐거워했고 죽어서도 즐거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수마나와 같이 항상 정신을 예리하게 하여 흐트러트리지 않고 늘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세상 양쪽에서 즐거워하게 되느니라.”고 하시며 앞표지의 계송을 읊으시었다.





##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 3월 3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3월 19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3월 21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대광사 수미산악회 3월 산행

- 3월 22일(일) 오전 7시 대광사
  - 경북 봉화 청량산(청량사)
  - 동참금 : 5만원

## 연등접수 안내

- 대웅전 / 설법전 / 관음전 / 영가등



# 대광후원회

(2026.1.19.~2.19.)

황두관 1만원	변창인 2만원	정창운 3만원	고춘지 40만원
이순남 1만원	김병문 2만원	김주영 5만원	이병정열정영어 40만원
정진이 1만원	김태희 2만원	차재원 5만원	카텍홀딩스 30만원
박미애 1만원	홍승운 2만원	정대식 5만원	
송성수 1만원	이인숙 2만원	박진호 10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지혜의말씀 후원(2026.1.19.~2.19.)

김영우 20만원 / 이영희 5만원 / 고윤준 5만원 / 오현우 5만원 / 김정수 5만원  
 이정배 2만원 / 정현욱 1만원 / 송민기 1만원 / 조홍준 1만원 / 청향심(영) 1만원

### ♥ 설담장학회(2026.1.19.~2.19.)

주지스님 10만원 / 신애란 10만원 / 손권자 10만원 / 최귀향 10만원 / 정성준 5만원  
 이지웅 5만원 / 이미경 5만원 / 김세훈 5만원 / 김경진 3만원 / 김태희 3만원  
 김단우 3만원 / 제영길 3만원 / 진병천 3만원 / 이유림 2만원 / 이윤정 2만원  
 박임선 2만원 / 변지오 2만원 / 이경화 1만원 / 이순남 1만원



## ※ 대광사 수미산약회 회원모집

- 매달 3주 토요일 산행  
(단, 사중 행사가 있을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회비 5천원 - 문의 및 접수 ☎545-9595

##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원각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佛紀 2570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4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6년 3월 10일 ~ 4월 1일(매주 화, 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계일	2026년 4월 4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3월 중순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포함)  
불교대학 1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범복 포함)  
불교대학 2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총 45만원(학기별 납부가능)  
불대계좌 : 수협 921-61-001749 대광사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biriya@hanmail.net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